

##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국제비교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으로 신규 진입한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약 16% 정도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5년 동안 1회 정도는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의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경우도 50.7%로 높게 나타남.
  - 호주와 EU-10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동일한 분석에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층의 1회 저임금근로 경험빈도는 각각 22%와 18%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회 이상 저임금근로 경험빈도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저임금근로를 경험한 횟수도 우리나라는 1.97회로 호주(1.20)와 EU-10개국(1.41), 영국(1.41)보다 높고 평균 저임금근로 기간도 26.1개월로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현상이 두드러짐.
- 각국의 5년간 임금근로를 유지한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경험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를 경험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중이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동시에 5년 동안 모두 저임금을 경험하는 청년층의 비중 역시 높게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 탈출률이 낮은 국가군(한국, 오스트리아, 그리스)에 속하는 반면, 저임금근로로의 재진입률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그림 1]은 분석기간 5년 동안 임금근로를 유지한 청년층(15~29세)의 저임금근로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비중이 66.5%로 독일(67.9%)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러나 5년 동안 계속 저임금근로를 경험한 청년층도 15.4%로 그리스(1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속함.
  - [그림 2]는 분석기간 첫해에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청년층이 다음 해에 저임금근로를 탈피하는 탈출률과 그 이후 3개년 조사에서 저임금근로로 재진입하는 진입률을 계산하여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 탈출률은 67.4%로 오스트리아, 그리스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재진입률은 39.8%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게 분석됨. 평균 저임금근로 기간은 3.5년으로 그리스(3.6년)와 비슷한 수치임. **[11]**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층의 저임근로 : 5년간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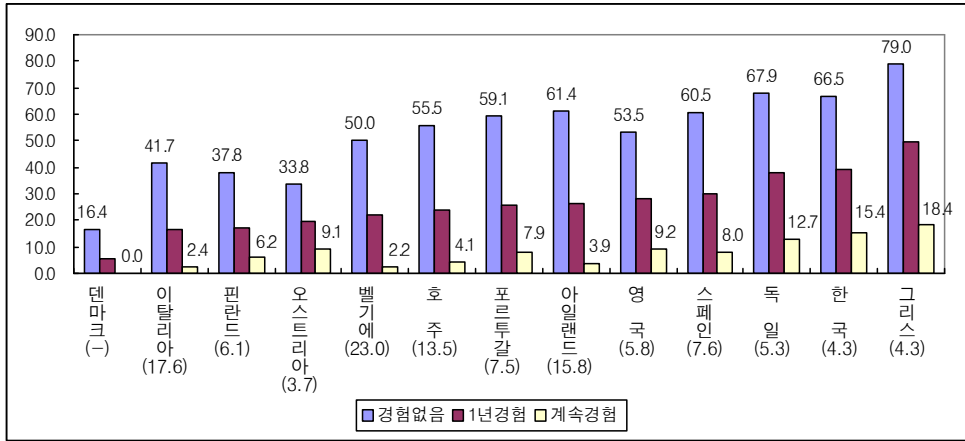
			저임금 경험횟수	저임금 기간(개월)	경험없음 (%)	1회 경험 (%)	2회 이상 경험(%)
호주	전체	Medium-high-skilled	1.15	11.5	46.1	21.8	32.1
		Total education	1.20	12.1	44.5	21.9	33.6
	남성	Medium-high-skilled	1.33	13.6	38.5	25.3	36.2
		Total education	1.40	14.5	36.6	25.3	38.1
	여성	Medium-high-skilled	0.91	8.7	56.2	17.2	26.6
		Total education	0.92	8.7	55.7	17.1	27.2
EU-10	전체	Medium-high-skilled	1.10	11.4	51.4	18.6	30.0
		Total education	1.41	14.2	44.0	18.1	37.8
	남성	Medium-high-skilled	0.85	7.4	60.9	15.1	24.0
		Total education	1.17	10.3	51.3	17.0	31.7
	여성	Medium-high-skilled	1.44	17.0	39.8	21.9	38.4
		Total education	1.80	19.8	34.7	17.4	47.9
한국	전체	Medium-high-skilled	1.88	25.0	34.7	16.4	48.9
		Total education	1.97	26.1	33.5	15.8	50.7
	남성	Medium-high-skilled	1.34	18.5	37.9	26.8	35.4
		Total education	1.50	20.3	35.4	25.0	39.5
	여성	Medium-high-skilled	2.14	28.2	33.2	11.4	55.4
		Total education	2.20	29.1	32.5	11.2	56.3
영국	전체	Medium-high-skilled	1.68	10.9	39.6	12.8	47.7
		Total education	1.41	9.0	46.5	13.1	40.3
	남성	Medium-high-skilled	1.54	9.9	43.0	9.3	47.7
		Total education	1.39	8.6	46.0	11.2	42.7
	여성	Medium-high-skilled	1.88	12.4	34.8	17.6	47.6
		Total education	1.45	9.5	47.2	15.6	37.3

- 주 : 1) EU-1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2) 저임금근로자 판단기준은 해당국가의 25~54세 피용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임.  
 3) 표본은 분석기간 직전연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5년간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한 15~29세 청년층으로 한정했음(유럽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자료 한정).  
 4) Medium-high-skilled는 ISCED 3/4 또는 5/6에 해당하는 교육수준임. 즉 한국의 교육체계와 비교하면 고졸 이상의 학력수준을 의미함.

자료 : 호주, 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HILDA), 2001-2005.  
 EU-1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ECHP), 1997-2001.  
 영국,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 2001-2005.  
 한국,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2000-2004.

〈청년취업자(임금근로)의 저임금근로 경험〉

(단위 : %)



주 : ( )안은 저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비중을 5년 모두 저임금근로를 경험한 청년층의 비중으로 나누어 수치임.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탈출과 재진입〉

(단위 : %, 년)

